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김기수	면담자	김순옥		
면담장소	대호식당	면담지원	이혜숙		
면담 일시	2021년 10월 22일	회차	1	시간	28분 33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889				
구술 개요	처녀 때부터 음식하는 게 취미였고, 식당을 하고 싶어 시작함, 큰 대 하늘 호를 붙여 대호식당, 코로나로 몇 개월 쉬고 다시 하고 있음, 아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 배달은 하지 않음, 김치를 직접 담금.				
주요 색인어	대호식당, 학익동, 당진, 장사, 손님, 메뉴, 한식, 백반, 대호, 상호, 재료, 고춧가루, 농산물, 야채, 코로나, 반찬, 가을, 미원, 동아리, 가격, 물가, 공덕, 배달, 변천사, 학익시장, 김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장사를 하게 된 동기			00:00:00~ 00:01:58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고향은 충남 당진이고, 학익동에 온 지 34년. - 처녀 때부터 음식하는 게 취미였고, 식당을 하고 싶었음.					
2. 대호식당			00:01:59~ 00:04:03		
- 한식, 백반 위주로 하고 있음. - 큰 ‘대’ , 딸 이름 끝 자인 하늘 ‘호’ 를 붙여 대호식당으로 지음.					
3. 재료			00:04:04~ 00:06:00		
- 수입은 될 수 있는데로 안쓰고, 고춧가루는 직접 말려서 씀. - 친정이 시골이어서 농사짓는 곳이 있음. 야채 같은 건 여기서 씀.					
4. 손님			00:06:01~ 00:12:16		
- 코로나로 몇 개월 쉬었다 다시 장사하고 있음. 전에는 다섯명이 해도 바쁠 정도로 줄지어 먹기도 했음. - 돈 버는 생각보다 가족 같은 생각으로 맛있으면 권장해서 드림. - 주로 가을에 손님이 많았음. - 손님들 자체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접해서 미원을 안 쓰니 쓴맛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음. 현재는 감칠맛을 내주는 약한 미원을 씀. - 아들이 자전거 동호회를 갔는데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학익동에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한 곳이 대호식당 이었음.					

5. 앞으로의 계획		
- 물가가 올라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음. - 마음은 건강이 따라줄 때까지 하고 싶지만 모르겠음. - 배고픈 사람 붓 주는 것도 공덕이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음.	00:12:17~ 00:16:40	
6. 코로나		
-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 좌절감, 우울감이 있었는데 조금씩 풀리면서 손님들이 찾아오심. - 배달과 겸하는 것은 어려워 하지 않음.	00:16:41~ 00:20:51	
7. 동네의 변천사		
- 처음 왔을 때는 학익시장을 주로 다녔는데 건물이 들어서면서 신기시장으로 다닌지 20년이 넘음.	00:20:52~ 00:23:45	
8. 마무리		
- 김치를 직접 담금. - 건강하면 언제까지라도 장사하겠다는 생각.	00:23:46~ 00:28:33	